



정통부, “올해 IT 생산 27조원 · 수출 143억달러 늘리겠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는 지난달 17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04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를 갖고, IT인프라 고도화와 후방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보통신부 주요 부처의 핵심 인사들이 발표한 이날 설명회에는 산학연 IT 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해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글 신승철 기자 / 사진 이해성 기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광대역 IT로 실현하자’라는 타이틀로 시작된 ‘2004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에서는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활성화하겠다는 정통부의 의욕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정보화 정책 및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지난해 정통부의 추진성과, 올해 비전 및 정책방향, 그리고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휴대인터넷사업자 선정, 디지털위성방송 논란, 홈네트워크 서비스 및 9대 성장동력 세부추진 방향 등과 관련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제반 환경변화로 정통부 역할 증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되고, 컴퓨터와 칩이 내장된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급속히 전이되면서 국내외 정보화 정책 및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화 투자를 매년 급속히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첨단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2조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올해부터는 국방성 네트워크 장비를 IPv6로 교체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른바 ‘e재팬Ⅱ’ 정책을 수립, 2005년까지 1,000만 가구에 FTTH 보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를 위해 이미 2조5천억원을 사용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통부 관계자들은 사이버 공격의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기반/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

르렀다고 역설하고, 환경변화와 더불어 정통부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즉, 기관별 정보화 사업을 추진·지원하던 역할에서 광대역통합망(BcN) 등 공통기반 구축 및 역기능 해소에 주력하게 됐다고 것이다. 지난해 정통부 정책의 추진성과로는 홈네트워크 구축계획, IPv6(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 보급촉진계획, 브로드밴드 IT 코리아 비전 2007, BcN구축계획 등 참여정부의 정부화 비전 및 전략 계획을 수립,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밖에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글 도메인 서비스 제도 도입 ▲전자정부 로드맵 지원 ▲특등급 초고속건물 인증제도 수립 ▲인터넷주소자원예관할법을 제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했으며,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 및 불법 스팸메일 규제 강화 등을 지난해 성과로 들었다.

반면 미흡한 점으로는 ▲관련부처간 역할분담 논란으로 IT신성장 동력 창출로의 본격추진 지연 ▲DTV 전송방식 논란 미종식 ▲W-CDMA 서비스 활성화 필요 ▲업무혁신의 제도화·상설화를 위한 전담조직 미비 등을 꼽았다.

9대 광대역 IT R&D에 2,461억원 투입

정통부는 올해 9대 IT 신성장 동력 추진하기 위해 차세대 휴대인터넷, 지상파 DMB 송수신/단말, 유무선 통합 홈서버, 멀티플랫폼용 게임엔진을 개발하고, 휴대폰용 멀티미디어 칩셋을 국산화하며, 임베디드 SW 100가지를 국산제품에 탑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2007년까지는 4세대 이동통신 시제품 개발, 세



계 IT Soc 3대 선진국, 세계 3대 공개SW 생산국 도약 등의 중장기적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세계적 기업의 R&D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키로 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R&D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과도 맞물리는 것이다. 현재 경쟁국에 비해 기업 경영환경 불리(연구인력 인건비 중국·인도의 2.5배, 기업활동 용이성 싱가포르의 절반 수준), 복핵문제와 노사관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 등 대내외적 여건은 크게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연구개발비 산정, 지적재산권 귀속 등 R&D 규정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선하고 R&D센터 입지로서 한국의 강점을 적극 부각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또한 9대 광대역 IT에 R&D예산 총 2,461억원을 투입해 IT산업 생산 27조원 및 수출 143억달러 신규창출을 주도키로 했다. ETRI-민간기업 상호 파견제와 R&D전과정 관리 시스템(PECOM: Planning, Evaluation, Commercialization & Marketing)도 도입한다.

올해 각 부문별 R&D 예산을 살펴보면, ▲차세대 이동통신 766억원 ▲DTV 251억원 ▲홈네트워크 275억원 ▲IT SoC 251억원 ▲차세대 PC 192억원 ▲임베디드 SW 96억원 ▲디지털콘텐츠 281억원 ▲텔레매틱스 149억원 ▲지능형로봇 200억원이다. IT산업 고부가가치화 차원에서는 19개 핵심부품 국산화로 2007년 매출 23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공개SW 활성화를 통해 SW구입비용 420억원 절감효과도 추진된다. 민관SI수주 지원단을 4개권역 20회 파견해 7억달러 수출할 계획이다. 온라인게임 5억달러 수출목표를 위해 해외게임센터도 개설한다.

2010년까지 50M~100Mbps 구현키로

미래 첨단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BcN, IPv6 등에 주력한다. 오는 2010년까지 2,000만 가입자에게 50M~100Mbps 속도의 광대역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장기적 목표 아래, 올해

에는 광가입자망(FTTH) 등 BcN 핵심기술 개발에 965억원, 첨단연구개발망 구축에 159억원, 고품질IP망 확대구축에 644억원, 가입자망 고도화에 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기존 IPv4 기반 주소자원은 오늘 2006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IPv6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2005년부터 IPv6 상용서비스 개시하고 2010년까지 All IPv6 기반 네트워크로 전환토록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IPv6 시범망을 14억원을 들여 70개에서 9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신기술 사전검증,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IPv6 연동확장 기술 및 액세스 라우터 상용 시제품 등 기술개발에 40억원을 투입하고, 국제협력 강화 및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지식정보 DB 구축 및 활용도 극대화한다. 올해에는 47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0만건의 DB를 구축하고, 2,000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월 800만건이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총 1,850억원의 예산, 1억9,000만건의 DB 구축, 8,400명의 고용 창출, 월 500만건이 이용됐다.

IT수출정보 DB를 개편, 상담센터와 수출지원체계 강화에 나선다.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자금지원 등 종합정책지원기관으로 육성한다. 대북 협력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북한정보통신연구센터를 설립, 남북한 우편 및 전기통신 합의서의 연내 체결을 추진한다. 또 다국적기업 R&D센터 유치를 위해 HP, SAS,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베이스, 애질런트테크놀로지와의 협상을 진척시키고 텍사스인스트루먼트, AMD와의 협상도 추진한다.

HW 및 대기업 중심 수출구조 개선

정보통신정책국 정책총괄과 송유중 과장은 "지난해 IT산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14.7%에서 15.6%로 0.9% 증가, IT생산은 188조원에서 209조원으로 11% 증가, IT수출은 469억달러에서 573억달러로 23.5% 증가하는 등 양적성장은 대체로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기생산은 전년대비 15.2% 성장했으나 서비스 생산은 3.5% 성장에 그치는 등 기기중심 생산구조가 여전했고,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세 품목의 수출이 82%를 차지하는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IT제조업 순이익률은 5.5%이나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0.6%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U센서 네트워크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올해 연구개발(70억원), 시범사업(50억원) 등 138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고 6월중 주



파수 분배, 10월중 시범서비스 계획을 완료한다. 300MHz대역을 신산업용 주파수로 할당하는 한편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논란을 종식시키고 디지털케이블TV와 양방향TV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2.3GHz 휴대인터넷의 표준화 및 사업자선정방안을 확정, 2006년 본격 서비스 개시하고, DMB 방송국도 허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RFID 주파수 분배의 핵심기술 개발해 2007년까지 세계시장 5% 점유하겠다는 복안도 세웠다. 또한

W-CDMA 서비스 보조금도 허용한다.

이밖에 건전하고 안전한 디지털사회 구현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 정보화기획실 기획총괄과 노영규 과장은 “지난해는 전년대비 개인정보 침해 18.5%, 해킹 60%, 바이러스 100%, 불건전 정보 15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스팸메일 전송자 처벌도 강화돼 기존 벌금 최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바뀐다. 스팸메일 차단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표〉 정통부의 2004년 분야별 추진계획

구분	목표	정책	R&D
차세대 이동통신	2.3GHz휴대인터넷 시제품 개발	휴대인터넷 표준 마련 및 허가정책방향 결정, 이동통신달말 해외 인증시험 지원	[766억원] 30Mbps 휴대인터넷 기술개발, 100Mbps급 4G 이동통신 핵심 IPR 확보
DTV	지상파 DMB 송수신 시스템/단말 개발	DTV 전송방식논란 종식, 도청소재지 DTV방송국 개국 방송법 개정 및 DMB방송국 허가	[251억원] 지상파 DMB단말 SoC 개발, DTV 실내수신율 99% 확보, 하향 400Mbps급 케이블모뎀 개발
홈네트워크	유무선 통합 홈서버 개발	시범사업 추진 전시관 개관, 홈NW 표준화 적극 유도, 공개SW 적극 활용	[275억원] 54Mbps급 무선홈NW 기술개발, FTTH기반 홈GW 기술개발, 홈NW용 차세대 서버 개발
ITSoC	휴대폰 멀티미디어 칩셋 국산화	SoC 지적재산(IP) DB 구축으로 재활용 극대화, SoC 석박사 양성 및 중소기업 협업체계 구축, SoC 개발툴 공동활용지원	[251억원] 휴대폰용 카메라칩, 그래픽칩, 화면구동칩 개발, 광통신용 반도체소자 개발
차세대 PC	손목시계형 PC 첫선	웨어러블PC 국제패션쇼 개최, 초단거리 개인NW 표준안 마련, 섬유공학, 의학 등과 학제적 인력 양성	[192억원] 초소형 PC시스템 시제품 3차원 스마트입력장치 개발, 오감정보 실감기술 개발
임베디드 SW	100가지 제품에 탑재	임베디드 SW 전문인력 3천명 양성, 임베디드 SW 공모대전 실시, 교통·방재 정보화사업 적용	[96억원] 텔레매틱스, 로봇, 홈서버용 OS, 임베디드 SW 표준플랫폼 개발, 임베디드 SW 개발툴
디지털콘텐츠	PC, TV, 콘솔 공용의 멀티플랫폼 기반 시범서비스 실시	시범콘텐츠 제작 지원,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 국제 모바일 3D 콘텐츠 표준규격 제정, 전자정부사업 공개SW 적용	[281억원] 게임엔진 기술개발, 콘텐츠 유통보호기술 개발, 독일 호주 등과 디지털콘텐츠 국제공동연구
텔레매틱스	통합교통정보 센터를 통한 서비스 구현	텔레매틱스 시범사업 추진 제품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텔레매틱스정보센터 구축	[149억원] 테스트베드용 표준 인터페이스 및 운영시스템 개발, 고속이동차량용 155Mbps 초고속멀티미디어서비스 기술
지능형 로봇	주인을 알아보고 다가와 악수하는 휴머노이드	로봇-NW간 연동표준 마련 NW 기반 지능로봇경진대회 로봇틱스 전문대학원 과정 개설	[200억원] 얼굴인식을 95% 확보, 1.5km/h 보행기술 개발, 지능형 로봇용 실시간 NW 및 SW 개발